

70-80대 어르신 아름다운 선율... "삶의 활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은빛합주단

구영웅 지휘자 등 30명 15년째 합주
매주 금요일 연습...10월 공연 '구슬땀'
"연주할 때 행복"...자신감·만족도 최고

"하나, 둘, 셋"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익숙한 멜로디가 공연
장 안에 울려 퍼졌다. 곡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
원들은 다시 악보를 넘기며 다음 연주를 준비했
다. '아리랑 목동', '황혼의 엘레지', '빠꾸기 왈
츠', '꽃타령', '달타령'까지 가요와 민요, 동요,
가곡, 클래식을 오가는 16곡의 연습이 쉽
지 않아졌다.

지난 15일 오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강당에서는 은빛합주단의 정기공연 준비가 한
창이었다.

2011년 창단한 은빛합주단은 70-80대 어르신
들을 중심으로 30명이 활동하는 합주단이다. 피
아노와 기타, 색소폰, 플루트, 트럼펫, 드럼 등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꾸려졌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정기연습을 이어오고 있다.

은빛합주단은 구영웅(88) 지휘자의 제안으
로 출발했다. 당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는 악
기별 동호회는 있었지만, 여러 악기가 어우러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은빛합주단의 구영웅 지휘자와 단원들이 오는 10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는 연주 활동은 없었다.

이에 구 지휘자가 악기 교실 참여자들을 중심
으로 단체 연주 구성을 건의하면서 지금의 은빛
합주단이 만들어졌다.

이날 연습은 오는 10월22일 열리는 정기공연
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은빛합주단은 4개월마
다 신규 단원을 모집하는데, 이번 연습은 새 단
원 모집 이후 두 번째 합주였다. 서툰 부분도 있
었지만, 단원들은 곡을 반복하며 조금씩 화음을
맞춰갔다.

구 지휘자는 "음악은 연주하는 이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한다"며 "단원들이 금요일
오전 연습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5년간 합주단을 이끌어오며 실력 향상에 대
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구 지휘자는 연습을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으면 직접 집으로 오게 해
개인 연습까지 함께 한다고 했다.

구 지휘자는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몇 년 전
중앙호수공원에서 야외공연을 꼽았다. 고향
의 단원들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공연 한 시
간 전 일일이 연락을 돌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
는 늦은 시간 귀까지 챙기며 무대를 함께 준
비했다고 돌아봤다.

무대 한편에서는 구 지휘자의 아내 손판순(8
1)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아 단원들과 호흡을 맞
췌다. 88세 플루트 단원도 눈길을 끌었다. 악기
를 든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는 취미 활동 이상의
열정이 느껴졌다.

합주단에는 창단 멤버도, 새로 악기를 시작한
단원도 함께하고 있다.

합주단의 막내 격인 서수옥(64)씨는 3년 전부

터 색소폰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늘 나 자신은
릿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며 "음악을 하면서 삶의 활력
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 창단 당시부터 활동해온 안영재(83)
씨는 "프로 연주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다같이
모여 음악하는 시간 그 자체가 즐겁다"며
"무대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경험이
삶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은빛합주단은 매년 정기공연과 지역 행사, 요
양원·양로원 등 봉사공연을 펼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구영웅 지휘자는 "우리 단원들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호
흡을 맞추며 금요일마다 즐겁게 모일 수 있었으
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최명진 기자



담양경찰, 다문화·외국인 범죄예방교실

담양경찰서는 "최근 담양군가족센터와 협업체
지역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
로 제각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범죄 피해에
취약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
인 대상 주요 범죄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
며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참석자들의 빠른 이해
를 돕기 위해 별도의 다국어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도가 운영 중인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활용해 재난문자 번역과 긴급신고 기능,
생활안전 정보 서비스 활용법 등을 안내해 실효
성을 극대화했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
회 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
심한 범죄 예방 활동과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
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경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논의

보성경찰서는 "학생 대상 이상동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근 모든 과·계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
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월22일까지 유관기관, 지역 협
력 단체와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한 특별 경찰활
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
력을 투입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싹을 차단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평온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신완수 경찰서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
민 피해가 없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
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목포경찰, 민·관·경 합동 치안활동

목포경찰서는 "최근 백련지구 일대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
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학생 대상 강력 범죄로 인한 시
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순찰에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목포자를
방범연합대 등 지역 협력단체를 비롯해 초·중·
고 학생 15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심야 시간대 통학로와 학원가 주
변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며 학생 눈높이
에 맞춘 제각형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경찰은 오는 7월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을 추진하며 학생들이 언제든지 안
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촘촘한 생활권 안전 환
경 조성할 방침이다.

문병조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두
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각
안전도를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호남영성연구원, '기독교 영성' 주제 세미나 성료

호남영성연구원은 "최근 사랑샘병원 7층 세
미나실에서 '다시 찾아 묻는 기독교 영성'을
주제로 6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
혔다.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강성열(호신대 명예교
수) 원장이 맡았고, 박용범(호신대 교수) 이사
의 기도, 서순복(조선대 명예교수) 이사장의 개
회사로 시작했다.

1부에서는 조한상 교수(호남신학대학교 영

성신학)가 '타교와의 비교에서 보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2부 토크 콘서
트에서는 김종현(로고스문화교회) 이사와 이
현주 목사가 대담을 통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임을 강조했다.

3부에서는 호남 영성의 맥을 잇는 판소리 예
수전 공연(김생심 명창·지순구 고수)과 감동적
인 클라리넷 연주(시각장애인 정선균 감보디아
선교사)가 펼쳐졌다. /박선욱 기자



함평서 '전남 꿈나무 체육대회'...아동 600여명 참여

전남도는 지난 16일 함평문화체육센터와 공
설운동장에서 도내 아동복지시설 아동 600여명
이 함께한 '제10회 전남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
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 꿈나무 체육대회에
출전할 전남도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자리로 선
수단과 응원단으로 참가한 아동과 아동복지지
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체육 종목에서 열
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 피
구, 배드민턴, 단체줄넘기, 계주 등 다양한 종목

의 경기가 펼쳐졌다.
참가 아동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
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경기장 곳곳
에서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
기가 이어졌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경쟁의 장이 아니
라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화합
의 자리"라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
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다"고 말
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효천2지구 주민연대 '주민 한마당' 행사

광주 남구 효천2지구 주민연대가 주민 한마
당 행사를 열었다.

효천2지구 주민연대는 17일 효천 천변길 근린
공원 중앙광장에서 '2026 효천2지구 주민 한마
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린이 사상대회에 참여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참석했으며 태권도
공연, 라인댄스, 마술공연, 셀프 달고나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중흥스클래스, 제일 풍경재 1차,
효천하우스디, 남해오네트 1단지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부대 행사장에서는 5·18 추모벽 만들기, 인질
미 만들기, 우유팩 딱지놀이, 행운권 추첨 등 세
대 소통 체험행사도 펼쳐졌다. /인태호 기자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1천번째 마을 방문

전남도는 17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1
천번째 마을 방문을 맞아 최근 완도군 신지면
신리마을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이범우 완도부군수, 신미경 전남도사회서비스
원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립국악단 축
하공연과 이동세탁차 운영, 자원봉사자 연계 주
민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전남도는 손자·손녀 사진을 액자로 제
작해 전달해 주민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
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8월 첫 운
행을 시작한 지 4년9개월 만에 1천번째 마을 방
문을 맞았다. 운영 초기에는 코로나19 선별검

사 지원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
했다.

2022년부터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기초검진, 인
바디검사, 혈압·혈당 측정 등 보건서비스와 이·
미용, 안마, 갈갈이, 키오스크 교육, 네일아트,
틀니·안경 세척 등 28종의 제각형 복지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3만1천568명의 주민에게 25만4천16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서비스 접근성
이 낮은 마을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 도민이 제
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영농철 임직원 일손돕기 봉사

농협 곡성군지부는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최근 옥과면 사과농장을 찾아 임직
원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
을 비롯해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사과 적과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농협 곡성군지부는 지난해 '범농협 영농
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개최 후 임직원과 함께한
오곡면 하우스농가 딸기모종 제거작업을 시작으
로 5·6월 농촌일손 집중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대웅 지부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